

“한국 수영진흥센터 우리 지역으로”

광주 동구 제외 서·남·북·광산구 신청서 제출 영주 수영장·광주대·일곡 근린공원·남부대 후보 접수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념 유산이 될 한국 수영진흥센터 유치에 5개 자치구가운데 동구를 제외한 광주 모든 자치구가 도전장을 냈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한국 수영진흥센터 후보지 접수를 지난달 29일 마감한 결과 서구(영주 수영장), 남구(광주대), 북구(일곡 근린공원), 광산구(남부대) 등 4개 구에서 신청서를 제출했다.

광주시는 신청 서류 등을 토대로 건축

가능 면적, 대지 매입 비용, 생활권, 대중교통 접근성 등 7개 항목에 걸쳐 정량평가를 한다.

또한,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지 현장방문 등을 통해 개발행위 가능성, 기반시설 조성, 인근 시설과 연계성, 지역균형 발전 등 7개 항목 정성평가 등을 거쳐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후보지를 설립 부지로 선정하게 된다.

광주시는 자치구간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정량·정성 평가, 과잉 유치행위에 부여하는 감점을 합산해 후보지별 순위를 결정한다.

이달 말까지 1순위 후보지와 협의해 내년부터 설계에 들어간다.

한국 수영진흥센터는 2019 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기념하는 유산 사업으로, 연면적 1만2000㎡, 3층 규모로 국제규격 50m 경영 풀, 국제 스포츠대회 기념관, 편의시설 등을 갖추게 된다.

수영진흥센터는 꿈나무 아카데미 운영, 전국 규모 수영선수권대회 개최, 맞춤형 시민 수영교육 등을 통해 학교·생활·엘리트 수영을 연계하고,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선순환하는 수영 생태계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광주시는 올해 말까지 수영진흥센터 부지를 선정하고 2020년 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다. 2021년 착공을 거쳐 2023년 준공 및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영진흥센터 건립 사업비는 490억원 규모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설계비 6억원이 반영된 상태다. 한국수영진흥센터가 건립되면 광주시가 명실상부한 국제수영허브(HUB) 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황룡강 장륙습지 여론조사 15일까지 대면조사 연내 결론

광주 도심에 자리한 황룡강 장륙습지의 국가 습지보호지역 지정 여부를 가름할 광주시민 여론조사가 시작됐다.

1일 장륙습지 국가 습지보호지역 지정 실무위원회(TF)와 광주시 등에 따르면 여론수렴방안으로 정한 정보제공형 대면조사에 착수했다. 광주시가 선정한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오는 15일까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대면조사를 마칠 예정이며 지난달 28일 대면조사에 대한 첫 응답을 받았다.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최종보고 시한은 이달 24일이다.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1000명은 지역별로 장륙습지 인접 5개 동 주민 50%, 그 외 광산구 주민 20%, 동·서·남·북구에 사는 광주시민 30%씩으로 구성됐다. 연령대는 10~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으로 구분해 20%씩 배정했다. 1000명을 표본으로 설문 조사할 때 오차범위는 ±3.2%포인트라는 점을 감안해 실무위원회는 찬성이든 반대든 6.2%포인트 이상 격차가 나야 유의미한 조사 결과로 수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53.1%포인트 이상을 획득한 여론합의 안이 나오면 올해 안에 장륙습지의 국가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 여부를 확정한다.

여론조사에서 찬성 의견이 도출된다면 장륙습지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도심에 자리한 국가 습지보호지역이 될 수 있다.

장륙습지는 도시를 통과하는 하천습지로 광산구 호남대학교 인근 황룡강과 일원에서 영산강 합류부까지 3.06km에 이른다.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면서도 생태계가 단절된 도심에 자리한 지리적 여건으로 특히 주목받는다. 광주시 생태조사와 환경부 산하 국립습지센터 정밀조사 결과 도심 습지로는 드물게 829종 생물의 서식지로 확인됐다.

/최승렬 기자 srchoi@연합뉴스



지난 29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2019 광주광역시 투자환경설명회'에서 이용섭 광주시장(가운데)이 광주를 사업하기 좋은 친 기업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광주시, 국내외 굴지기업 투자 이끌었다

서울서 투자설명회...중 '신승로봇' 등 10개사와 투자협약

광주시가 국내외 굴지 기업에 대한 구애 끝에 중국의 로봇 분야 선도 기업 등과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광주시는 지난 29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국내외 기업 200여 곳이 참여한 가운데 투자환경 설명회를 열고 인공지능, 친환경 자동차, 스마트 에너지, 공기 등 산업 현황과 투자환경을 설명했다고 1일 밝혔다.

스마트 에너지·공기 산업 파트너사인 한전, LG전자 등을 비롯해 연구원만 4000여명에 달하는 세계 3위 로봇 기업인 중국 신승로봇 투자 유한회사 등 200여개 기업이 참여했다.

기업들은 설명회에 앞서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해 인공지능 산업단지가 들어설 첨단 3지구, 광주과학기술원 등을 답사하기도 했다.

친환경 전기 상용차 제조사, 뷰티 제품 업체, 웹툰 제작사 등 중국 기업과 대영, 현대하이텍,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등 10개사는 광주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하오 잔강 신승 로봇 투자 유한회사 총재는 "이용섭 광주시장(가운데)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광주에 투자하겠다'는 말을 이 자리에서 직접 해드리는 것으로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다"며 "신승은 협력 파트너로 영

원히 같이 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이전, 신·중설 기업을 대상으로 분양가 20% 이내 임지 보조금과 20억원 초과 설비투자액의 5% 이내 설비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500억원 이상 투자하거나 상시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이면 투자금액의 최대 10%까지 지원한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에 투자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공식을 만들겠다"며 "인공지능, 친환경 자동차 등 11대 미래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해 광주를 투자하기 좋고 기업 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 테니 적극적으로 투자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속도

전남도, 설계용역 착수...내년 상반기 착공 예정

전남도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이 오는 2020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와 함께 스마트팜 혁신밸리 기반 조성과 청년보육·임대형스마트팜·지원센터 등 핵심시설 세부 세부설계용역에 착수하는 등 전남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세부 실시설계용역은 기반조성 분야와 핵심시설 분야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기반조성 분야는 혁신밸리 단지 조성에 필요한 부지정지 및 용수, 전기, 도로, 빗물저수조 등 시설의 기초를 다지는 것이다.

핵심시설 분야는 청년보육센터, 실습농장, 임대형스마트팜 단지, 실증단지, 혁신밸리지원센터 등 구조물을 설계하는 것이다. 세부설계가 끝나면 인허가 협의와 시행계획 수립·공고를 거쳐 2020년 상반기 착공해 오는 2022년 완공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전남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지난 8월 고흥 대상 부지를 스마트농업 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지역농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협의한 후 부지 소유권 이전(33ha)을 9월

완료했다. 또 재단법인 설립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1차 협의를 완료하고,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흥군과 연계해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 스마트 산지유통센터(APC), 주민참여형단지 조성 등 지역농업인이 함께 하고,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기반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홍석봉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앞으로 기반 조성, 청년보육시설,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주민참여단지 조성 등 분야별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 아이디어와 벤치마킹을 통해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전남의 랜드마크로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고흥 도덕면 가리리 간척지 일원에 33.3ha 규모로 조성된다. 2022년까지 4년간 국비 589억원 등 사업비 1100억원을 들여 청년보육센터, 임대형스마트팜 단지, 실증단지 등이 조성돼 유망 수출품목이 집중 육성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사업비 480억 해수부 공모사업 보성군 선정 주력”

김영록 지사 회견면서 민박간담회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달 28일 보성 회견면 인근마을을 주된, 보성지역 '블루 투어' 관광산업 관계자와 올 들어 일곱 번째 삼야 민박간담회를 가졌다.

김 지사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자신이 공약으로 내건 '민박간담회'를 계속 개최하며 농어민들과 대화를 갖고, 이를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고 있다.

이번 민박간담회에는 김철우 보성군수, 임영수·이동현 도의원, 신경준 군의회 의장 등이 함께 했다. 회견면 백록다원에서 30여 주민과 대화를 나눈 후 다향울림촌으로 장소를 옮겨 30여 보성지역 '블루

투어' 관광산업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살피고 발전 방안을 심도 있게 토론했다.

김 지사는 마을 주민과 대화에서 "최근 보성군이 전국 7곳 중 2곳만 선정하는 해양수산부의 사업비 480억원에 이르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보성군이 선정되도록 지원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도와 보성군이 힘을 합쳐 도정을 힘차게 이끌겠다"고 말했다.

김해열(51) 면민회 재무부장은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과 배수량 향상을 위해 1km구간의 넓고 깊은 용·배수로를 확장 신설해줄 것"을 건의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영광 물무산 행복숲' 산림복지 경진대회 우수

전남도는 산림청의 2019년 산림복지 경진대회에서 '영광 물무산 행복숲' 조성사업이 숲의 문화적 가치를 높인 성과를 인정받아 산림복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에는 전국 17개 시도와 산림청 소속 지방 산림청 등 25개 기관이 참여했다. 산림청은 각 기관이 제출한 다양한 산림복지 우수사례를 창의성, 정책 연계성, 주민 만족도, 협업 등 각 분야를 심사,

전라남도를 비롯한 7개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영광 물무산 행복숲'은 영광읍 동동리에 2017-2018년 67억원의 예산을 들여 숲속 들레길, 유아숲체험원, 황돛길, 물줄이장, 편백 명상원, 소나무예술원, 가족명상원, 신생아탄생 기념숲 등 국민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산림복지 시설을 갖췄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